

# 익산 곳곳서 사계절 다양한 문화 행사 열려

시, 올해 계절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익산시가 올해 연중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통해 익산 곳곳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해 익산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힘썼다.

우선 계절별로 다양한 문화 행사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봄·여름은 익산 곳곳에서 펼쳐진 봄날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익산역, 원광대학교, 문화원에서 거리 공연을 진행했다.

가을에는 익산배산체육공원에서 가족 대상 나무꾼종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겨울에는 직접 지역아동센터, 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을 위한 무드등 만들기, 접시 꾸미기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매년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을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같은 문화시설을 배경으로 한정적으로 진행해왔던 것을 탈피해 올해는 소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주민들의 생활 반경을 찾아가며 문화 활동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해가 되었다.

특히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해 문화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문화사각지대 해소



익산시가 올해 연중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통해 익산 곳곳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해 익산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힘썼다.

에 힘썼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문화 행사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하여 문화 시설을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줄어서 좋았다"며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어린이들을 단체로 이동 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그러한 수고로움을 덜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계속 진행해 문화 혜택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 보석박물관, 크리스마스 '기부 Day' 열려

익산 왕궁 보석박물관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시작일에 특별한 기부 이벤트가 펼쳐졌다.

시는 보석박물관 잔디광장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시작일에 '주는 기쁨 받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기부 Day' 행사를 지난 23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일 '기부'를 주제로 한 '92 Day'에 이어 진행된 2단으로, 재료소진으로 참여를 못했던 방문객들의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 진행됐다.

성탄절을 맞아 방문한 관광객들을 위해 다수 단체로부터 다양한 물품을 지원받아 운영되었으며, 수익금은 전액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과 관람객들이 나눔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며 "보석박물관은 내년도에도 이어지는 '익산 방문의 해'를 향해 국내외 관광객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전북 게임산업 육성 우수성 인정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전북도는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북글로벌게임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2023 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1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북글로벌게임센터는 2022년에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2023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북 게임산업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2023 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 평가는 전국 12개 시·도 게임센터를 대상으로 올 한해 게임산업 육성 실적과 내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시행됐다.

전북글로벌게임센터는 이번 평가에서 센터 인프라 확장 및 개선, 지역 대학과 연계 등을 통한 게임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창출, 우수 인디게임 양성의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게임콘텐츠 개발 및 게임기업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지원기업 30개사에서 147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대학연계 인턴십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21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우수한 성과로 지역 게임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전북글로벌게임센터 로고

특히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주)투트쓰리게임즈의 데미지 키우기 방치형 액션 RPG 게임은 제작지원과 상용화 지원사업을 수혜 받아 글로벌 174개국 런칭, 다운로드 수 100만, 매출액 57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구글플레이 선정 '올해를 빛낸 수상작 2023' 중 인디게임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북글로벌게임센터는 지역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2018년 11개에 불과했던 전북 게임기업은 2023년 현재 72개로 6년 간 655% 증가했다.

정화영 도 문화산업과장은 "게임의 불모지였던 전북에서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조금씩 우수 성과와 우수 기업이 출시되고 있다"며 "게임산업을 전북의 대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한송지 작가 첫 개인전 '그 어느 틈 사이 피어난'

전북문화관광재단, 경력 단절 전문예술인 창작활동 동기 부여... 29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 이하 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한송지 작가의 첫 개인전을 전북예술회관 3층 산마루 전시실에서 열고 있다.

한송지 작가는 청년예술가로 청년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불안을 극복하고, 도전을 통해 사회와 융화하려고 하는 열정에 대한 의지를 '도자 조형물(도자를 이용한 평면 시각작품), 생활자기' 예술로 표현했다. 특히 흙, 철 구조물, 유리, 목재 등을 이용해 도자의 표면을 바위, 아스팔트, 꽃 등으로 시각화했다.

'어느 틈 사이 피어난' 전시 주제를 통해 "현 시대의 청년들이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하는 청년들의 강렬한 이야기를 작품에 담고자 했다"며 개최 소감을 전했다.

이번 전시는 도내 최근 5년 이내 개인전 이력이 없는 경력 단절 시각 분야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개인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각 분야 전문예술인에게 창작활동 동기 부여 및 예술활동증명 등록 연계로 이어질 수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한송지 작가의 첫 개인전을 전북예술회관 3층 산마루 전시실에서 열고 있다.

있도록 기획했다.

센터(063-230-7430~7433)로 하면 된다.

전시에 대한 문의는 전북예술인복지증진

/김재훈 기자

# 서경덕 교수 "경북궁 낙서 오래됐다... 시민의식 개선해야"

서경덕 교수는 "경북궁 및 다양한 궁 내에는 이미 낙서로 도배된 지 오래"라며 시민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지난 22일 SNS에 "이번 경북궁 담벼락 낙서 테러 때문에 온 나라 시끄러운 상황"이라며 "안그래도 인젠가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낙서 테러에 대해 공론화를 좀 하려고 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논란이 된 건 사실이지만 경북궁 및 다양한 궁 내에는 이미 낙서로 도배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경북궁 안팎으로 CCTV 설치 대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부심 및 긍지를 가지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면 낙서 테러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무엇보다 시민의식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화재 보존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며 주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